

해양문화연구 제5호 1999년 12월

바다를 향해 열린고장 - 경남의 지역문화론 -

김 열 규*

〈目 次〉

1. 「경남적인 것」을 찾아서
2. 자연의 패러다임 변혁
3. 남북의 판(각)이동
4. 정책변화와 문화변동
5. 새로운 남북의 패러다임을 위해

1. 「경남적인 것」을 찾아서

경상남도 문화의 지역적 개성을 말하라! 심히 난감하다. 적어도 경상인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얻어내고 보여주고 하는 것에 견줄 수는 없다.

흔히 “경상도 도깨비는 놀아도 칭칭이로 논다.”고 한다. 바로 이웃 호남의 도깨비들이 칭칭이를 안 부르거나 못 부를 것만은 틀림없다.

세마치의 느린 듯한 장단이며 둔한 몸발림, 춤추기보다는 우쭐대는 듯한 연속 동작 등을 연상하면 이내 이른바 「경상도 기질」이란 게 뭔가 잡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 나가기는 어렵다. 도깨비란게 애시당초 믿을 게 못된다.

* 인제대 국문학과 교수

그렇다면 다른 노래며 거기 딸린 춤을 들라면 어떨까?

가령 밀양에서 창녕 일대까지 불러지던 「어산요」는 경상도 민요의 기본토리라고 지적되곤 한다. 다같이 강원도 민요의 바탕토리인 「메나리」에 견줄 때, 경상도의 기본토리 노래는 뽕박질하는 듯한 장난기 같은 것, 그 토막토막 잘리는 연쇄음의 높은 옥타브 등이 느린 듯한 애조의 강원도 토리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실감할 수 있다. 휘영청한 전라도 토리의 기본인 시나위와도 물론 다르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아리랑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막대기 장단에 구유 두들기기 장단까지 겹쳐진 그 지계 춤사위를 진도나 정선 아리랑에 맞추어 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리 덩더쿵 쓰리 덩더쿵”

오늘날까지 남은 몇몇 아리랑의 후렴 가운데서 이같이 디딜방아 굴리듯 하는 아니면 소달구지 패인 길 가듯 하는 「덩더쿵 장단」에 맞비길 장단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옥박지르고 패는 듯한 장단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편적인 기술(記述)은 제법 「경남적인 것」을 지적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길 수 있을 것이다. 방언이란 고약한 말로 일컬어지던 「고장말」 곧 「경남말」을 보기로 들면 「경남적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명중 그 자체로 부각된다. 경남인은 결코 「대구」를 발음할 때 대구 사람처럼 첫음절에다 강한 높은 음의 억양을 붙이지 않는다. 아니 붙일 수가 없다. 이같이 「칭칭이」와 「밀양 아리랑」 그리고 고장말을 하나로 묶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경남적인 개성을 공통으로 말하고 있을 하나의 패러다임일 수 있는 개연성을 헤아리게 된다. 가령 경남인이 제 고장말에 「무뚝뚝함」, 「강직」 등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경남적인 경계선으로 삼을 수 있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나아가서 그 의미부여의 상징성을 「칭칭이」와 「아리랑」에 확대하여 나갈 수 있을 개연성도 헤아릴 법하다. 그 경우 의미부여의 선을 더 늘려서 「지조」, 「신의」 그리고 「강한 주관성」에까지 미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남명정신과 형평사의 기질을 논의 속에 이끌어 넣을 가능성도 제법있을 것 같다. 이 경우 남명정신과 형평사에 대해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일원의 경남인들이 그

들 공동체를 위한 경계선 구실을 함직한 상징성을 이미 비교적 풍요하게 또 성공적으로 부여해 온 사실을 연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때 또한 남명이 「사천재」에 응거하면서 강하게 의식하였을 지리산 천왕봉이며 그가 감회깊게 노래한 두류산 양단수에까지 같은 공동체 경계선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우겨 보아도 이같은 일련의 논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기질론의 테두리를 벗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화와 생활의 총체적 양식과 이념 및 가치체계 사이의 대응에서 그 특이질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단편적인 현상기술로 「경남적인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심히 온당치 못하다고 해야한다. 물론 한 지역의 문화 특이질은 민족공동체의 그것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없다. 또한 그 특이질은 실증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아니다. 지역구성원들이 기층적인 공동의 전통과 지향점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신임하고 있는 관념적인 상상적인 체계다. 이러한 문화 특이질은 “고장말”이나 “아리랑”을 따로 말할 때처럼 쉽게 드러날 수는 없다. 이같이 해서 무엇인가 잡히는게 있다고 해도 그것은 편견이거나 독단일 수가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한 공동체는 내적인 문화의 공질성과 외적인 이질성 곧 공통소와 차이소로 해서 자체적인 <아이덴티티>로 삼거니와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의 문화적 경계선 곧 <차별화의 감각> 이기도 한 것이다. 이 “경계선은 공동체의 시작과 끝을 확정짓는 선”이다.¹⁾

하지만 이 공동체의 문화적 경계선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명증할 것이 못된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과 경험과 마음안에 있는 것이어서 “상징” 이거나 “상징적” 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 상징 내지 상징적인 것 마저 단일 명제로 요약되어서 잡혀질 성질은 것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생활, 경험 그리고 그 속에 내재하는 마음을 총체적으로 부감(俯瞰)하거나 조망하는 것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잡혀질 성질의 것이다. 문화가 더러는 사회 그 자체와 동의어로 잡혀지거

1) A. P. Cohen,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and New York, 1985, p.12.

나 아니면 「사회의 총체적 양식」과 같은 의미로 잡혀짐을 이 경우 고려해야 한다.²⁾

경남문화의 경계선 긋기에 필요한 시각이며, 잣대를 이상과 같이 전제한다고 해도 실제의 선긋기가 잣대만으로 잘 실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경남이란 생태적 지역성 및 근세 백년이 내포한 엄청난 변화의 정도 및 다양성 때문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그 변화의 빠르기라면 백년을 두고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백년이면 강남의 강산은 없어질 만하지 않을까. 거대한 역사적 충격만 들추어 보아도 개화(開化)며 개항(開港)에 일제의 침탈, 8·15 광복, 남북전쟁이 줄줄이 연쇄 폭발한 광음이 아직도 귀에 쟁쟁할 정도다.

더욱 근대 이후 「한 세기」의 시간량은 그 이전의 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한국 역사상 미증유의 「변화의 세기」를 지난 백년 사이, 우리 한국이 그리고 경남이 겪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근세 백년은 사건량이며 시간량에서 그 이전의 천년, 이천년보다 더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파천황의 한국 근세 백년을 경남은 최전방에서 때로는 초병처럼, 때로는 문턱처럼 그리고도 모자라서, 방과제처럼 치르고 또 겪어왔다. 개항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침탈도 경남에게는 남먼저 뺨맞는 격이 아니라 남먼저 또 남달리 모질게 된 벼락을 맞는 격이었다. 해외에서의 이른바 귀환 동포를 생각할 때, 경남에게 광복은 역사적 변천의 일차적 관문이었다.

남북전쟁 때는 또 어땠던가. 파야간에 최후의 보루, 최후의 고지로서 경남은 그 참변을 감당해 내었다. 그때만 해도 '경남의 수부였던 부산의 부두가 병참시설로 활용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부산이 없었다더라면' 하고 돌이켜 가정해 보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남지 일대의 낙동강 교두보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는 것도 무서운 일이다.

이러한 짧은 회상으로나마, 우리들은 근세의 경남 백년이 민족사의 압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경남은 「변화의 세기 속의 변화」였던 셈

2) Alan O'Connor, Raymond Williams, New York, 1989, p.58.

이다. 「변화의 세기」로서 경남은 근세 백년을 겪었다. 한국 근세사 백년의 「태풍의 눈」이 경남이었다면 과장일까.

이제 경남은 그 시련을 성공적으로 겪어 내었다. 아니 아직도 겪어 내고 있다. 지금도 이를테면 「개항도시」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산업화의 집중도며, 도시화의 강도가 남다른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역사적 탈바꿈을 여전히 그만큼 심하게 겪어내고 있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가장 해안선이 긴 축에 속해있지만 그 전체 연장선이 바다와 육지 양쪽에 걸쳐 거대한 산업화의 띠를 이루고 있다.

「경상도」라고 이름지어진 동기가 된 두 고을, 즉 경주도 상주도 경남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된다면 경남은 「경상도에 못끼는 도」다. 경주, 상주, 안동 등을 끼안은 경상좌도에 비해 문화적으로 열세라고 해봄직한 경상우도를 경남이 계승하고 있다는 관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상주, 경주, 안동을 잇는 선에서 내려다 보아서 「아래」로 일컬어지기도 하던 지역이다.

한테도 경남인들은 그것도 경상우도인은 남명의 선비다운, 지사다운 기개와 진주 형평사의 민중적인 의지를 별로 모순없이 한아름으로 끼안을 수 있었다. 또한 정희량(鄭希亮)의 「무신란」과 진주민란을 3·15항쟁과 부마항쟁에 연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지금도 우리들의 궁지로서 혈맥속에 박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남의 지형적 생태를 전통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의 궁핍이나 분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서로는 지리산과 백운산 그리고 덕유산, 중간어림으로는 가야산, 감악산, 화왕산의 연봉 그리고 동으로는 가지산, 천왕산 등으로 연이어지는 이른바 영남 알프스의 봉우리들. 이들 거산준봉들을 완만한 하나의 띠로 엮으면, 경남의 거대하고도 고준한 지붕이 떠오른다. 남한 전체를 도별로 보아서 이만한 일괄된 거봉의 지붕을 가진 도는 달리 없다.

거기 봉우리 혹은 깊은 품속에 쌍계사, 해인사, 석남사, 통도사 등 천하의 거찰이 서로 어깨를 맞겨주고 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리산 성모며, 덕유산 모주(母主), 가야산 정경모주 등 성역 등의 자취가 역역해진다. 이것은 우리의 산악이 종교적 성역임으로 해서, 오히려 은둔과 피신의 자리였음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세상 피해서 숨어서 사는 곳이

곧 산이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에 살어리랏다.”로 시작해서는

“이링공 더링공 하야

보즈란 디내와 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봐즈란 또 엇디 호리라”라고 이어서 부른 「고려가요」 이래의 산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높고 깊어서 이룩된 은신 자리의 자락에는 넓고 깊어서 또 달리 은신의 자리가 된 바다가 지붕을 이룬 산맥들과 겨룸질이나 하듯 펼쳐져 있다. 낙도가 있고 귀양살이가 있는 곳이다. 산의 은신과는 또 다른 은신의 영토다. 산보다 더하게 버려지고 저주받고 한 범역이다. 오죽하면 사랑도와 매물도 두 섬에 각기 아비와 딸, 오빠와 누이 사이의 이루지 못한 근친사랑의 애기가 거기 쳐박혀 있을라고. 경남의 남해안은 「원죄의 바다」다. 그러기에 산이나 바다나 전통사회에서 「소외」의 범역이었다. 쫓김과 박해, 가난과 수난, 모멸과 오욕의 지역이기로는 산과 바다는 서로 다를 바 없었다. 「갯놈」, 「뱃놈」은 계층조직에 끼지도 못한 또 다른 천민이다.

그 소외의 두 범역, 그 거대한 범역 사이에 경남의 온전한 삶의 터전은 가까스로 끼들어 있었다. 그게 경남의 지형 생태론적인 존재성이다.

이같이 경남이 겪은 통시적인 급변과 그 생태지리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의 경계선이 이미 주어진 잣대만으로 쉽게 그어질 것 같지는 않다. 거기다 통시론적으로는 변한과 가야 그리고 신라 등의 문화적 적층성이 의미할 다양성 이외에 공시적으로 제약된 범역안에서 조차 경남은 극동부의 신라, 중간지대인 가야 그리고 극서부의 백제 등의 다양성을 「선문화」의 바탕으로서 고려치 않을 수 있다.

또한 낙동강을 경계로 민속놀이의 「좌밀양, 우영산」 혹은 「좌야류, 우탈춤」 등의 변별성도 다양성의 하나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경남의 역내 국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소론은 해매고 머뭇대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문화적 경계선 기기가 비틀대고 허우적댄 나머지 선은 아무래도 직선은 못될 것 같다.

2. 자연의 패러다임 변혁

앞장에서 바다와 산이 언급될 때 이미 시사되었듯이 문화의 변화는 생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경 자연에도 변화를 준다. 아니 자연으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강요할 것이다. 그러기에 문화가 십년 달라지면 강산도 달라지는 것이다. 두보 식으로 말한다 해도 결코 「국파사하재」가 아니다. 고려 유신의 흉내를 낸다고 해도 “인걸이 간데 없으면 산천도 의구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것은 불행히도 인간에게는 자연도 문화임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순수 자연은 없다.

오늘 경남의 낙동강이 그리고 지리산이 그리고 또 남해가 백년전의 그것들과 의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죽만의 이야기다. 아니 심한 경우 거죽도 같을 수 없다. 한 공동체의 역사는 자연사도 포함해야 한다. 언젠가 경남인은 경남의 역사를 고성 바닷가에 지천으로 찍힌 공룡발자국을 역사사체의 각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구포며 그 대안인 대저면 일대에 독이 쌓이면서 낙동강은 달라졌다. 「동양척식회사」를 앞세운 일제는 김해벌을 저들의 역사적 망상을 뒤쫓아 근세의 「임나」로 탈바꿈해 버렸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땅이며 소작원을 빼앗긴 농민들은 「국내이민」을 강요당해서 그 강변에서 농도 아닌 농노가 되어야 했다. 오늘날에도 대저면 일대 넓은 들에 일본 지주의 집이 덩그렇게 솟아있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 뒤 낙동강은 서울을 향해 북으로 또는 위로 물품을 수송하는 흐름이기를 그만두었다. 대마도 너머로 모든 것을 실어내 가는 흐름의 상징이 되었다. 낙동강은 남류하는 물줄기가 되었다.

이 변모가 경남의 경우 낙동강 뿐일까? 지리산은? 그리고 남해는? 여전히 백년 사이 나라망하고 세월은 변해도 의구하였을까?

지리산은 그 이웃 덕유산과 더불어서 이제 말이 없는 듯이 보인다. 피앗골도 거창 북상의 서젯골도 물소리뿐인 듯하다. 하지만 그 물소리에 묻힌 다른 소리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자연이 문화이듯, 골짜물 소리도 사람의 소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과 덕유산이라면 미어지는 가슴의 아픔없이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처절한

인간의 소리가기 때문이다.

피앗골에서는 아직도 해골이 나타나고 거창 북상면 깊은 굽턱에는 빨치산의 검정 고무신짝이 남겨져 있다. 그러기에 지리산도 덕유산도 역사다.

지리산을 가령 세로로 잘라서 그 단면을 들여다 본다고 치자. 거기에는 자그마치 몇 개의 층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가정하면, 최상층의 화전지대, 중간의 건전(乾田)지대 그리고 최하층의 수전지대 등으로 지리산 단면은 세 겹의 층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정되거나 정착된 3층 사이를 내왕하는 제 4의 이동층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포수들과 약초꾼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이같은 경제적 층위 이외에 종교적 층위도 있을 수 있다. 최상층은 지리산 성모를 주신으로 삼은 무속신앙에 의해 차지될 것임에 비해서 중간층은 불교 그리고 맨 아래층은 유교에 의해 차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첫째, 지리산을 경제·종교 등 두개의 기준 축의 횡적 상호관계, 둘째, 경제·종교 기준 축내에서 갈라진 각각 네 개의 층 및 세 개의 층사이의 수직적 상호관계, 셋째, 위에서 언급된 두 관계 사이의 상호연관 등에 걸쳐서 다양하고 중첩되게 지리산을 경남인의 생의 현장으로 기술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가상된 지리산의 경제·종교적인 속성이 다시 섬진강 상하류 지역을 위시해서 근린의 여타 경남 및 호남지역에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 검토될 때, 비로소 문화로서 지리산은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같은 속성의 변화가 추구되면 근대 백년사에 걸친 지리산의 <문화적 변모>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지리산의 <문화적 변모>의 과정에서 남북분단과 그에 따른 6·25 전쟁은 결정적인 동기로 그리고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가 오기까지 지리산은 그 다양한 경제·종교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은신과 은둔의 영지였다. 나무지팡이 거꾸로 꽂고는 길이 산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다는 최치원의 전설이나 그밖의 신선 및 도사에 관한 이야기의 무대가 곧 지리산이다.

그같은 도교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은사(隱士)의 자리에 빨치산이 들어선 것은 무슨 역사적 인과관계로 설명될 것인가?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

는 달아난 자들이고 숨어들어간 자들이다. 그들은 은사들의 뒷자락에서 그들의 향오를 쫓다. 하지만 그들은 달아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을 역사의 최전방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다같이 산으로 숨어들어가되, 옛 사람들은 드디어 신선과 도사를 꿈꾸었다. 하지만 빨치산은 숨어들어감으로써 역사에 불을 질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에서 신선이나 도사의 그림자를 썩쓸이로 지워버렸다. 이 점은 여순반란 사건의 주모자인 김지희 일당이 숨어 들어간 덕유산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지리산이나 덕유산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종교적 단층을 간직한 문화로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말살되었다. 다만 오늘날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치한 은사」로서 지리산을 찾는다. 그들은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숨어 들어가서 신선을 꿈꾼 은사, 숨어 들어가서 역사의 침병이 된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일시적 은사로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 이같은 일종의 패러다임 변화속에서도 지리산의 백년사는 시사될 수 있을 것이다.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라던 시조는 산의 극히 일부 속성을 묘사한 것 뿐이다. 산도 절로가 아니고 물도 절로일 수가 없다. 1960년 중반 이후 산업화가 닥치기까지 적어도 경남의 문화 중에서 지리산만큼 큰 변화를 겪은 것을 달리 보기로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리산에서 화제를 남해로 옮겨 보아도 남해 역시 문화로서 겪은 변화는 크다. 은둔 내지 은신의 지리이던 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을 벗어나 청정함, 도덕의 자리로서 갖는 거룩함 등을 함축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산수화까지 고려한다면 산은 「이승의 피안」을 함축할 수도 있었다. 더욱 지리산은 동방의 방장산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진 만큼, 다른 산보다 더하게 그같은 함축성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서 지리산을 닮은 도며 얻은 깨우침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해서 간직하는 「수장의 자리」로 관념한 것도 이들 함축성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그렇지 못했다. 바다는 산이 지닌 「가난」, 「궁핍」, 「소외」 등 그 부정적인 속성을 일방적으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향살이의 낙지(落地)요, 「뱃놈」 내지 「갯놈」의 영지였다. 더욱 남해는 서울

에서 보아 「아래의 또 아래」였다. 그것은 「천지(踐地) 중의 천지」였다. 「고기 배 따먹는 놈」은 백정에 버금하는 천민이다. 그들은 필경 살고기의 백정 아닌 물고기의 백정들이다. 거제와 남해를 잇는 해역은 대표적인 「낙지」다. 가령, 여지승람에서 고성(高城)의 지세를 “외로운 섬이 바다에 임한” 형국이라 표현했을 때 이점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 이 지역은 아랫땅으로 아예 버려진 곳, 그게 남해였다. 수로왕을 찾아온 탈해와 허비에게서 또 다른 피안(하늘과 짝지을)의 상징성을 이에서 찾기 어렵다.

남해의 신앙체계, 특히 골맥이 곧 지역수호신에 바쳐진 신앙에서 최영 장군이 갖는 몫은 매우 크다. 우세하게 최영 장군은 경남해역의 주신이다. 그가 개성 중심의 고려왕조 인물임을 생각하면 기이한 느낌이 들 정도다. 남해안의 최영 장군은 서해안의 임경업 장군에 비견될 원신이다. 좌절환원장(怨將)이 최영 장군이라면, 이 해역 사람들이 그에게 부여하고 있을 의미, 곧 상징성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같은 추정은 사랑도 서편 지척에 떠있는 수우도의 골맥인 설능(서능) 장군에 의해 보강될 수 있다. 그는 왜적을 격파하는 신화적 민속 영웅이다. 한데도 왜적의 계략에 놀아난 관현들에게 사로잡히는 바 되어 그는 요절하고 원장이 된다. 아내에게마저 배신당한 그에게 있어서 원귀성은 한층 더 질을 수 밖에 없다. 육지와 비교하였을 때, 바다(해안 및 도서)에서 수호신의 신격과 원한의 연관도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이 사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삶을 누리던 바다 주민이 그들 자신의 살아있는 원한을 원신(怨神)에게 투사했으리라는 추론을 하게 유도한다. 즉 원신의 원한의 강도와 바다 주민의 좌절의식의 강도는 비례할 것이라 짐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해는 아테네인들의, 혹은 칼타고인의 아니면 베니스인들의 바다와는 사뭇 다른 바다였다. 그들처럼 수평선의 중앙에 구도의 초점을 자리매김하는 따위 세계상은 우리 남해의 몫이 아니었다. 사뭇 다른 바다였다. 남해는 개방도 새로운 세계를 향한 향로도 아니었다. 모험도 탐험도 거기엔 없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물의 사막」 곧 해막(海漠)이었을 뿐이다. 이에는 물론 바다 건너기 무서운 사나운 해적인 일본인들의 세계였다는 사실이 가세했을 것이다.

남해에는 근세까지도 떠다녔다. 뗏목과 크게 다름바 없는 원시적인 「물

의 탈 것」이 떠있는 바다, 그 적막한 바다가 근세까지의 우리 남해였다. 띠배보다 좀 나은 통구미가 물살을 갈랐다고 해도 띠배와 마찬가지로 이 평저선(平底船) 가지고는 그 뛰어난 회전능력 등 몇가지 쓸만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를 누빌 수는 없었다. 그러기에 남해안의 경남땅은 우물안 개구리들의 땅이나 진 배 없었다. 「해양」이란 개념은 남해와는 무관했다. 원해 또는 원양은 무서운 곳이었다. 장보고의 역사는 한갓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다. 극히 최근에 육지섬 주민들이 육지를 원해에서 근해어로 편입해 달라고 진정한 데서도 바다 공포증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기에 바다는 액을 띄워 보내는 「악운의 종착지」였다. 한국 민간구술 전승의 분포로 보아 달리 유례가 없을 만큼 우리 남해 바다의 섬에 두 곳씩이나 근친간 얘기가 전해져 있는 것도 남해라는 바다가 재앙의 끝이자 반륜의 끝이기도 했던 탓이라 짐작된다.

삼포의 왜란 그리고 임진란 및 한일 강제합방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원인에는 이같은 묵은 남해의 상징성이 가로 놓여져 있다. 다같은 우리의 남해지만, 저들에 의해서는 우리와 다른 상징성이 부여된 것이다. 저들에게 남해는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세계에의 진출을 의미했다. 그만한 상징성을 저들은 우리의 고향바다에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해막」의 의미며, 상징성을 부여했다. 대마도가 가운데 놓인 해역의 대한 해협 중간쯤에 한일 두 나라의 문화적 경계선을 긋는다 치면, 바로 이같이 상충된 바다의 상징성이 거기서 대치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 지기전에 바다의 문화에서 우리는 미리 패배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 대치에서 밀렸다.

그러므로, 삼포왜란 등 말썽도 없이 육지가 강제합병 이전에 이미 일본인 기업의 전초기지화하고 거기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자와 그가 신앙하던 신의 이름을 둘다 육지의 지명으로 남기고 있는 어장주가 상주한 것은 차라리 당연한 추세인지도 모른다.³⁾

이래서 우리 남해는 하다못해 강제협약조차 없이 저들 식민지로 화한 것이지만 이는 한때 현감의 현지근무가 불가능했고 급기야 그곳 주민철수가 불가피했을 만큼 극악했던 왜구 노략질의 무대로 화한 거제군 일대

3) 육지의 좌부량포(座富良浦)와 곤비산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의 해역을 생각할 때,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같이 해막의 고장, 한때 백여개의 유인도를 헤아리던 섬까지 합친 남해 해역에서 주민들은 「반농반어」라기보다 「주농종어(主農從漁)」⁴⁾로 생활했다. 이것도 해안주민과 섬주민에게도 바다는 걸다리요 변두리, 이를테면 변경이었음에 대해 말해준다.

지리산 및 소백산맥의 연봉과 남해 사이에 펼쳐진 경남의 평야, 곧 하동, 진양, 함안, 김해 그리고 밀양을 잇는 평야만이 온전한 부와 안정된 생의 터밭이었다. 경남의 유교문화의 정수지대요, 명문거족이라고 해도 좋을 향반들의 준거지다. 서쪽 끝에 정일두가 자리잡고 있다면 동쪽 끝에 김중직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 지대는 자진하여 택한 남명류의 장사들과 벼슬길이 제도적으로 막힌 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은 처사들이 반사반농(半士半農)의 처사들이 사대부 아닌 선비의 정신이며 문화를 이룩해 온 것이다. 경남의 평야지대, 바꾸어 말해서 경상우도의 평야는 처사며 정사의 땅으로 더없이 소술하고 정갈했다. 남명의 사천재 벽에 그려진 두 폭의 서로 다른 그림-바둑 두는 신선과 소부리며 발갈고 있는 농부-이 이 경지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제수탈의 여파와 광복이후의 토지개혁으로 잃기 시작한 경남의 평야지대는 드디어 60년 중반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더는 낮기 어려워보이는 고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논들이 이제 더는 「문전옥답」이 아니고 만 것이다.

이같이 물의 논, 곧 수전이 고갈되기 시작할 무렵, 경남의 남해에는 반작용이듯이 「해전(海田)」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굴, 피조개를 비롯한 각종 어패류의 양식장이 남해의 연안해역을 거의 채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물의 수전과 해전 사이의 세대교체는 마침내 부분적으로 계층의 변화까지도 유발하였으니, 산을 등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갯놈이라고 알보던 사람들을 되려 선망할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아직까지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느냐 못보내느냐에 따라 중심에 편입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4) 강남주

상황 속에서 「갯놈」들은 여의롭게 대학생 자식을 두었으나 들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해전과 어획물의 값의 상승으로 부의 상징이 되는 사태 속에서, 또 한국산업의 진흥, 수출진흥의 물길로서 발전의 상징이 되는 사태 속에서, 논외의 빈곤의 상징, 퇴락의 상징으로 전락해 갔다.

바다와 물 사이의 경제적 힘의 역전은 한국 역사상 근자에 와서 비로소 연출되었다. 그것은 획기적인 것이다. 푸른 바다는 황금물결이 되고 푸른 논은 창백한 표정으로 바뀌어져 갔다. 전남 신안과 경남 거제 등, 두 섬 출신이 지난번 대선에서 서로 호적수가 된 것은 따라서 그 상징성이 높다고 할 만하다. 한국의 해양시대는 이래서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지만, 경남의 바다는 그 획기적 변화를 어떤 다른 도보다 앞질러서 그리고 절대적인 비중으로 추구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데 성공했다. 바다가 해전과 수출의 물길로 탈바꿈하기로는 경남이 단연 다른 해역을 압도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엄청난 바다의 「패러다임 변혁」이다. 육지의 변두리, 땅의 끝이던 바다는 이제 육지의 부를 가능케하는 근거지로 바뀌었다. 쇠국의 담장이었던 바다는 개방과 발전의 수로가 되었다. 이 변화를 제일 선에서 도맡아 치른 것이 경남이다. 가야시대에 동북아 철기문화의 교역 중심이던 가야의 왕은, 김해가 못다 이룬 꿈이 이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남해는 시달리고 있다. 육지 오염의 막장으로 그리고 해전의 자체 오염의 원흉으로 수출의 물길에서 빚어지는 오염의 굶터로 전락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사라져 가는 곳에 양식장 부이의 폐조각이 떠돌고 있다. 미역이 더 이상 앉지 못할 곳에 중금속이 달라 붙고 있다. 겨울이면 가비며 비오리 그리고 가마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우리 고향바다를 찾게 될지 기약하기 쉽지 않다. 여름이면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놓고 물살에 몸을 맡겨도 좋은지 어떤지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경남의 바다, 우리의 남해는 이제 다시 떨쳐 일어서서 바다의 상징성의 또 다른 긍정적인 패러다임 변혁에 이바지해야 한다.

3. 남북의 판(각)이동

최근 사백년 동안, 경남의 변화를 위에서와 같이 「자연사」를 하나의 준거로 삼아서 관측할 때, 남북의 판(板)이동은 매우 두드러져 보인다. 산악을 등진 북의 무게가 줄고 바다를 낀 남의 무게가 비교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커진 것이다.

경남 백년의 문화·사회적 변화는 엄청나다. 참혹하고 그리고 눈부시다. 그것은 경남 백년이 민족사 백년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으면서도 가장 따뜻한 보약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선구적 희생」과 「선구적 갱신」으로 경남이 근세 한국백년의 전위요 최전선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보다 먼저 심하게 당하고, 남보다 앞에서 떨치고 일어난 것이 경남이다. 그것은 임난 당시 경남이 겪은 역사적 경험의 재현이라고 평가되어도 좋을 것이다. 부산포 일대를 비롯해서 동래성, 진주성의 막심한 희생을 딛고 홍의장군이며 사명대사의 의병들이 거둔 성과를 이경우 연상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공동체에서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다. 지연과 혈연 및 단일한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기준으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할 수 없다. 자연이 생산시설이요 또 생산결과이기도 한 그런 경제체제도 우리와는 멀어져 가고 있다. 서로 이질적인 집단, 상충하는 이익집단 별수없이 「남과 남」의 모임인 낮선 집단들로 도시화며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경남은 도시화에 걸친 산업화가 가장 급격하게도 넓게 추진된 지역이다. 경남의 연안은 그전체 연장선상에서 도시화에 걸친 산업화가 추구되었다.

그리하여, 문화며 사회적 자장(磁場)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 무게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아주 대대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저울대 기울기의 정도 혹은 시소의 중력의 이동에 견주어질 만한 것이다. 지각 아닌 문각(文殼)의 엄청난 이동, 문화적 판의 이동이 일어났다.

함양은 옛부터 「좌안동 우함양」으로 일컬어지던 만큼, 경남 유교문화의 중심지다. 그 함양과 산청(그에 이웃한 진양 일부), 의령 그리고 밀양을 동서로 이으면서 경남의 지붕의 자락을 따라 형성될 지대는 경남 전통문

화의 안방이다. 경남적인 처사 또는 장사의 드높은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 있던 이룰테면 「문기(文氣)의 땅」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남북분단의 여파 아닌 직접적 충격을 가장 가혹하게 겪은 것이 이미 시사할 수 있듯이, 문화중심을 잃고 산밑 내지 산골의 외진 촌구석으로 몰려 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 인구가 남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뒤따르듯이 문화의 중력 또한 바다쪽으로 밀려 들었다. 이것은 경남의 경제적 문화적 남북현상이다. 빈부의 차, 발전·후진의 차가 그 사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국경선처럼 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역내 남북현상을 경남은 맨 선두에서 유례없이 겪어야 했다. 낙동강 양안을 낀 동부와 거기서 멀리 떨어진 서부 사이에서도 경남이 경제적 지역차를 겪은 게 사실이지만 동서의 축의 편향된 기울기는 남북의 그것에 비교할 바는 아닐 것 같다. 그러나 물론 「동서현상」도 전적으로 경시할 수 없을 때, 경남의 「동서남북 문제」는 막중한 숙제로 남아야 하고 또 도전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기울기의 전도는 전국적으로 그 파장을 미쳤다. 중앙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적게나마 힘의 기울기에서 견제할 수 없는 대척적 지역으로 부산을 끼고 경남은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남이면 한자루에 저울대의 끝과 끝이다. 서울에 인천을 합하고 경남에 부산을 합해도 두지역이 저울대의 대척적 극이기로는 다를 바없다. 다행히 경남의 한쪽 끝에서 거의 수직으로 서울에 곧두박혀 있던 저울대를 자신 쪽으로 조금이나마 기울어지게 만든 것이다. 이 시소게임, 이 널뛰기가 적어도 서울과 지역 사이에서 역사상 최초로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것임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조선조 영조 연간에 노론이 영남유림(함양쪽의 서부경남의 유림까지 포함)을 폄박하면서 배제하고 심지어 「반역항」으로 지목하면서 소위 「평영남비(平嶺南碑)」나 「진남서원(鎭南書院)」을 세우고 짓고한 그 암담한 한때가 새삼 되돌아 보여지는 것이다.

그 당시 기호의 노론들은 영남의 남인을 노론화하려고 하였으니 이에 포섭당한 지역민을 함양사람들이 “추어” 곧 미꾸라지라고 조롱하였다고

전혀져 있거니와⁵⁾ 서울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운 저울대를 경남으로 얼마쯤은 기울게 하였다면, 이제 경남인은 얼마만에 미꾸라지꼴을 면하게 되는 것일까.

이상에서 지적된 경남의 판이동은 어느 쪽인가 하면, 경제쪽에 쏠려 있다. 이 말은 경남의 새로운 산업지대가 적어도 문화발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창원, 마산, 진주, 울산을 통털어도 박물관이며 미술관 또는 공연장 등에 화제를 제한해도 한국 전체의 수준으로 보아 남달리 내세울 게 있다고 해도 극히 적을 것 같다. 대학을 비롯한 교육에 있어서도 상대적 열세를 유감스럽게 자인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긴 하지만 산업풍요 속의 문화빈곤을 아직은 면치 못하고 있다.

화제를 음식으로 옮겨 보아도 적료하기는 마찬가지다. 냉면, 만두, 곰탕에 설렁탕, 모두 한시대 전의 경남인 구미와는 무관한 먹거리들이다. 옛날 경남의 장거리의 으뜸가는 별미이던 국밥은 함안 구읍의 국밥집이나 의령의 유사한 식당 말고는 얼마나 더 많이 명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경남의 명물 「막장」은 음식문화의 막장에 내물린지 이미 오래다. 고성, 통영 일대의 옛 가부리찜은 호남의 홍어찜과 차마 대적할 수조차 없다. 남원일대에서 토종돼지의 사육이 재흥되고 있음에도 사천돼지는 사천농고에 한두마리가 견본 마냥 남겨져 있을 뿐이다. 거창 똥돼지는 신원면 안에 몇 마리나 남아 있을까. 경남식 「단술」은 기호지방 식혜에 완전히 눌리고 말았고, 우리식 추어탕이 지극히 존립이 위태롭다. 남해안의 「문어떡통국」은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있을까. 진주의 식당을 죄 뒤진다고 해도 옛경남식 먹거리는 겨우 한두집, 무면허 안방 식당에서나 입에 넣을 수 있는 지경에 다다랐다. 왜 만두를 먹으면서 경남의 떡국은 안 먹을까.

공예에서도 그렇다. 통영 십이공방의 국가지정문화재 장인 가운데는 서울로 옮겨 간 사람도 있다. 남겨진 주석장, 소목장, 굽음장을 전수하는 공방은 통영시 외딴 후미진 곳에서 여간 적료하지 않다. 옛십이공방 자리에는 유희비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다.

5) 군지편찬위원회, 함양군지(증보판), 1992. p.25.

전통기술은 또 어떤가. 의령군 신반쪽의 딱종이 명성이 호남쪽의 그것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전남인에게 「진도 아리랑」은 전 전남노래나 다들바 없음에 비해 우리의 「밀양 아리랑」은 상대적으로 밀양군민 노래쯤으로 웅크리고 있다면 잘못 판단한 것일까.

이쯤에서 신세타령 같은 낫두리 같은 사실은 접어 두자. 하지만 문화적 열세를 감안한다고 해도 경남의 판이동의 의미는 적게 평가될 수 없다. 경남은 지금 경인에 버금하는 한국안의 「용」이다.

하지만, 경남이 용이 되기까지 치른 댓가는, 그 잃은 것은 앞의 음식문화가 부분적으로 시사하듯, 결코 만만치 않다. 변화의 부작용 또한 대수롭지 않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잃은 것을 생각하면, 아직은 얻은 것에 매길 점수를 크게 높여 주어서는 안된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처사나 징사 정신이 말해주듯, 또 경남기질이 그렇듯,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만큼, 경남의 새로운 변화는 진통치고도 지나치게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들은 「정(情)의 공동체」에 살고 있지 않다. 얼굴도 피도 흙(고향)도 서로 통하지 않는 경쟁자로 된 사회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만인은 만인의 늑대로서 자기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쟁의 윤리, 경합의 미덕 등은 시민윤리로 교육되지도 못했고 정착되지도 못했다. 정을 버리면서 이내 사람들은 「비정의 인간」이 되었다.

교양이나 인품은 이제 성취목표도 동기도 아니다. 사람들은 욕망으로 자기증명을 얻어내려고 아우성이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 돈과 쾌락을 무섭게 서리감고 있다. 욕망(lust)을 승화시켜 사회문화적 성취동기(incentive)로 유도하는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야말로 오늘의 한국이란 팀의 주전(主戰)들은 「신한국족」인 듯 느껴지기도 한다.

가령, 이 점은 성에 있어서조차 욕망이나 쾌락원리를 억압해야 했던 한두 세대 이전의 한국인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성은 무엇보다 순수 혈통유지에 이바지해야 했다. 말하자면, 옛 한국인에게는 「번식의 성」이 압도적이었다. 남자를 씨앗에 여자를 밭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 탓이지만, 남녀에로스가 농사 및 마을풍요를 위한 은유로 사용된 것은 당연하다. 혈통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을 윤리로

뭉었고 그것이 보장되는 한 더럽고 부정한 성도 참을 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부끄러움, 추잡, 더러움 등의 관념을 성에서 벗겨내지 못했다. 성은 되도록 없는 척하고 공적인 담론에서 성을 배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공개적인 성을 담론이라고 포르노그래피에 속할 것 뿐이었다. 종족유지의 성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되니까 「애정의 성」도 제대로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2, 3세대를 격하는 사이 성에도 엄청난 변화가 야기되었다. 산아제한으로, 인구정책으로 번식의 성은 극소화되었다. 애정과 쾌락원리의 성이 당연히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쾌락원리의 성은 부작용으로 상품의 성이 확대 그리고 폭력의 성의 발호까지 파생시켰다. 2, 3세대 이전의 한국인이라면 사람짓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상품화된 성일수록 자기미화가 심한 것을 보고 그들은 되려 추하다고 느낄게 뻔하다. 성은 이제 단적으로 욕망이다. 다만 병아리 감별 아닌 태아감별조차 서슴치 않는 어머니에 의해서 되려 여성박해의 성차별이 끈질기게 나도는 것 정도로 그나마 전통적인 젠더론(성역할론)이 살아있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새로운 효부요 열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성은 물목(종류)만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물목의 변화에 성역할의 변화도 덧붙여졌다. 전통적인 남녀 개인 사이의 성역할에서 여성의 성에 「주체」가 없었다. 아니 여성은 그의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가부장제 사회원리에 의해 만들어서 주어진 성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여성은 자신의 성에 있어서도 피동적인 종속자였다. 보관하고 있다가 원 생산자나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내놓아야 했던게 여성의 성이다. 여성의 성은 공급에 응할 「수요」였다. 차려진 밥상과 마찬가지로였다. 남녀 사이에는 능동과 피동 이외에 소유자와 피점유자의 차별이 있게 되었다. “정조 바침”, “먹히다” 등은 남성에게 차려서 내놓아지는 여성의 성을 두고 생긴 관용어들이다. “몸을 주다”는 여성만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맡겨진 것을 주는 것뿐이라서 적극적인 함축성은 없는 편이다. 여성은 부업에서 「상차림」 하듯 규방에서 「성 차림」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한 정도 이부분에서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부업에서의 부분적인 자유에 수반되어서 「성 차림」에서도 놓여지

기 시작했다. 이제 성의 보관자에서 기회자로 바뀌고 있다. 수요의 소모품이 아니라 소비자의 처지로 옮겨 가고 있다.

아무리 중세기라지만, 남녀 「성」만큼, 혹은 성의 사회적 관계만큼 철저하게 묶은 윤리와 신분조직과 사회계층에 묶이고 구속된 것은 달리 맞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성은 가장 중세기적이었고 가부장적이었다. 그런 뜻에서 성은 「제도의 제도」거나 「체제의 체제」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성이 자신의 성의 보관자에서 기회자로, 수요에서 소비자로 전신(轉身)해 나가는 과정은 정치의 민주화와 기업의 자유, 노동운동의 진전들과 밀착되어 있다. 성의 역사는 그대로 사회와 정치의 역사고 문화의 역사다. 성은 역사와 사회의 거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진전, 전국토의 보편적인 도시화(전통적 촌락구조의 변화가 수반된),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여성 성역할의 변화에 끼친 결정적인 영향까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해방과 5·16 및 그후의 군사 쿠데타로 인한 사회계층조직의 붕괴 및 그에 따른 신분이동의 격심한 흔들림을 고려한다면 성의 변화, 특히 여성의 성의 변화는 그 범시대 사회성을 더 심층화한 그리고 확대된 양상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것은 결코 일부의 변화 내지 국지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같은 시대, 사회의 변화의 보편적 문법 내지 메타로서의 여성의 성의 변화 내지 성역할의 변화에서 영남 내지 경남여성이 다한 몫은 크다.

부산국제시장, 범일동시장, 그리고 자갈치시장에서 전범이 구해질 경남 지역 전통시장에서의 여성역할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컸던 것이지만, 이것이 현대적 유통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을 기하학적으로 증폭시켰다. 또한 산업인구 특히 기층적인 생산라인에서의 여성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가령, 마산 자유수출단지를 드나드는 여성의 위압적인 물결이 보여주듯, 엄청난 것이다. 마산지역 섬유산업이며, 동부경남에 인접한 서부부산의 신발산업은 일종의 여성업종이다. 여기서 경남여성의 역척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토지」의 서회가 하동군 악양을 가상적인 무대로 삼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염통 조차 떨면서 울리는 높은 옥타브, 고함치듯 하는 발성법 등은 경남여성, 특히 해안지대 여성의 「특징적 언어」이지만, 그것이 말해주는 「여장부」다음은 서회적인 당찬 여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농촌가사(家事) 속에 이미 내재했던 가능한 씨앗을 새로이 다른 환경에서

움트게하고 길러가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이른바 가사와 남녀 성역할에서 가독권(task ledder ship)과 사회정서적 지도권이 각기 남녀의 몫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 경계는 한국 농촌 가사의 경우, 관념만큼 분명한 것들은 굳은 것도 아니었다. 여성들은 사회정서적 기능 이외에 밭갈이, 수확 등에 걸친 농사노동은 물론, 방아찜기며 직포 등 공업노동에도 밤낮 없이 종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전능, 전직종의 가사노동자였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여성이며 여장부가 태어날 기반이다.

경남의 현대산업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기층이었던 오늘 우리들의 「공순이」들은 저 어젯날 우리들의 자랑스런 「농순이」의 딸이다.

성 그 자체 및 성역할의 변화를 화제로 삼을 때, 특히 사회적 성역할의 변화를 말할 때,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농순이」와 「공순이」 사이의 역할 교체 또한 남북의 판이동과 아주 무관할 수는 없다. 공순이들이 남의 집단이라면 농순이들은 상대적으로 북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북의 「농순이」의 딸들이 남으로 내려 와 「공순이」가 되었다.

가령 조남명, 정일두, 정인홍, 김종직까지를 잇는 거대한 띠는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으로 이어져 동으로 더 뻗어가는 경남의 지붕, 그 「태산교약」과 병행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까지 경남의 남해안 연안과 병행한 지대에서 이만한 인물의 띠를 엮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울산, 김해, 창원, 마산, 사천을 잇는 남해안 산업지대의 띠에 버금할 띠를 경남의 지붕에 따라 찾아내기는 어렵다. 경남 남해안이 낳은 거대한 선사시대의 기념비인 하나인 울주 대곡리 암각화에 그려진 「바다 세계의 꿈」은 그뒤, 만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새로이 굶틀대고 있다. 그리고 남해의 전체 해안선은 경제며 문화 공룡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라기 공룡 발자국이 남겨진 바로 그해안이 아니던가.

경남은 이 남북의 판이동의 힘으로 동시에 한반도 전체의 남북의 역할 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지렛대를 질러 넣은 지 이미 오래다. 그리하여 한국이 세계를 다극화하는 축의 하나 내지 핵의 하나가 되게 하는데도 지방으로서는 가장 큰 힘을 최선봉에서 끼쳐 왔다.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남한내의 남북의 한이동에 힘을 끼친 것이 남북분단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방위에서 북은 오래도록 위(上), 뒤(後) 그리고 안(內)을 의미해 왔다. 자연방위가 그만한 문화적 의미론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은 아래, 앞, 밖의 방위였다.

적어도 경남 내부에서는 이제 이 방위의 문화적 의미론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것을 이룩해낸 경남인으로서는 그 뒤집기가 남한내에 그리고 드디어는 한반도 전체에 파급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고 그렇게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한정할 경남의 내일이기 때문이다.

4. 정책변화와 문화변동

이상에서 경남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의 문화사적 변이를 주축으로 삼은, 백년 안팎의 문화·사회적인 변동을 부감해왔다. 그러나 백년의 앞뒤, 분수령에서 우리들은 불행히도 일종의 통제국가 내지 통제사회를 경험하였다. 군사독재 및 그에 준하는 정치체제가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그것은 독단적인, 강압주의가 정책전체에 미쳤으며, 당연히 문화에도 파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싫든 좋든, 혹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문화변동의 한 요인으로까지 그 정책은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문화조차 한때 군대식 명령을 따라서 모습을 달리해 간 것이다.

민속은 물론 지역문화로서의 유기성을 갖추고 그리고 자연발생적인 속성과 자발성을 갖추고 있는 기층문화다. 그리고 생활문화다. 생활 그 자체거나 생활양식 그 자체인 문화다. 그것은 한 지역안의 토종생물에 견주어질 만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도태나 퇴화 또한 민속의 생물현상이다. 그러나, 민속은 인위적인 퇴락과 자연적 쇠퇴를 막기위해 생존투쟁을 벌이기 마련이다. 민속 자체가 이미 공동체의 생존투쟁이다. 자연의 폭력, 운명이란 이름의 생의 미지수의 작용에 대한 항거가 곧 민속이지만, 민속은 또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 민속에는 이중의 투쟁이 역동한다.

민속의 투쟁의 대상으로 가장 큰 것은 시대·사회의 변화다. 그리고 이 변화에 편승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및 행정상의 정책의 압력도 결코 만만치 않은 민속의 적이 될 수 있다.

현대화나 산업화를 앞세운 사회정책의 일환인 문화정책은 민속의 최전방 적대자 노릇을 한다. 이것은 물론 그것이 민속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에 극도에 이를 것이다.

경남 백년 동안, 민속의 적대자로는 한말의 개화에 이은 일제침탈을 으뜸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일제는 「총독부조사자료」를 전형으로 하는 식민지 인류학으로 이땅 민속을 조사한다기보다 조사해서 「하등인」에 대한 식민정책을 합리화하려고 들었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이에 대한 민속의 저항이 결집된 결과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별신굿 난장이 불운서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음으로 자유당 이후 역대 독재정권의 문화정책 역시 전통문화를 억압하기로는 서로 다를 바 없었다. 더러 장려한 대목이 있긴 하였지만, 그것마저 「잘못된 위에서의 간섭」 내지 압력인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전통문화와 무관해 보이는 오늘을 위해 합리적인 듯한 일반 행정시책조차 간접적인 억압자가 되기도 하였다.

보신탕 금지며 이른바 「식단제」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전통민속음식의 하나, 아니 가혹한 여름 농사짓기 노동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自救)책의 하나였던 보신탕에 대한 탄압 및 그 이유는, 특히 새로운 사대주의와 야합해서 민속문화 탄압의 일환이 되었던 것이다. 「식단제」는 우리들 고유의 음식문화, 그 중에서도 상차림 및 먹기의 예절이 통괄된 「먹기의 관습」을 무시하면서 파괴하는데 일조를 끼쳤다. 그나마 보신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책 그 자체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른바 「새마을 운동」은 마을 신앙을 「보신탕」을 행정당국에서 「혐오식품」으로 몰아붙이면서 「금식(禁食)」 목록에 올린 것은 우리 전통음식이 하나가 이른바 「문화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하게 희생될 뻔했던 대표적인 보기의 하나다. 이것은 필경, 동물성 단백질의 중요 공급원인 우유를 장기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띄운 「냄새나는 발효음식」인 치즈는 즐겨 먹으면서,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 공급원인 콩을 띄워서 만든 「냄새나는 발효음식」인 된장을 기피하려고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편견인 소산이다.

인간에게는 미각 및 식의 본능조차도 문화거나 문화로 윤색되어 있다.

민족적인 미각이 따로 있을 수 있고 민족적인 음식기호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개는 아직도 일부 농촌에서는 여름 보신용 가축의 하나다. 소나 돼지, 닭 그리고 염소와 함께 개를 먹어서 하등 나뭇 것 없다. 하지만 서구나 미국에서는 이른바 「펫(애완물)」이다. 미국인은 사람에게도 「펫 네임(애칭)」을 붙여 부르고, 학생도 선생의 사랑을 각별히 받으면 「티처스 펫」 곧 「선생 애완학생」이라 호칭한다. 그러기에 그들 개는 사람과 한 방살이를 한다. 그들로서는 당연히 먹어서는 안된다. 아직은 개를 펫으로 의식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한국인이 개를 먹는 것은 하등 시비거리가 못된다. 빵은 먹어도 좋고 밥은 먹어서 안된다는 폭론(暴論)과 추해도 다를 바 없다. 「개고기」음식은 현대 한국이 겪은 잘못된 「문화변모」의 전형이다. 외국 의 시각, 그 논리, 그 기호에 우리가 스스로 말려 들어서 우리들 자신 및 우리의 것을 폄하하고 나아가서 백안시하게 되면서 겪은 「문화변모」이기 때문이다. 서구인의 눈,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침을 뱉아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문화적인 주권상실의 오류다. 서구적인 종교논리로 우리의 민속 신앙을 그들 개념까지 빌려서 「미신」이라고 몰아붙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오류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속칭, 제3공화국 이후 억압 내지 탄압하면서 결국 자유당때의 「신정 쇠기」와 맥을 같이했다. 이들은 모두 행정상의 정책이 또는 사회관리제도가 전통문화의 속성에 대해 몰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것은 정책입안상의 명백한 실책이다. 보신탕의 금기 및 식단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속문화에 대한 통찰이 앞서야 했던 것이다.

적어도 겉보기로는 속칭, 제3공화국 이후 「지역문화제」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다. 전국적 규모의 「민속경연대회」 그리고 「문화재 지정」 및 「후계자 지정」과 동시 병행적으로 지역문화제는 방방곡곡에서 거나하게 또 질퍽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민속경연대회」는 민속문화를 그 뿌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림으로써 무기체(無氣體)화 하고 드디어는 가화(假花)가 되게 하였다. 놀이가 속한 생의 맥락, 공동체적 맥락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지역 문화제도 심히 인공적인 것이 되어갔다. 독재정권의 주민

진무용의 구실이 상대적으로 컸던 이들 문화제는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어른들의 운동회 그리고 어른들의 학예회로 획일화 되었다. 지역 특성이 부각된 아래서부터의 축제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문화제 주관이 특권화하기도 하였다. 이들 현상이 복합해서 결국 「과거(過去)의 놀이」가 정착하게 된 것도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생활양식, 가치의식, 사회체제 등이 급속도로 획일화되고 있었다. 당연히 반작용으로 이에 대거리 할 수 있는 강도 강한 민속축전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 시대의 수요가 지역문화제로 무시되었다. 결국 놀이에 의해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는 강화되어 간 것이다. 민속의 정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럴 경우,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의 강요를 들먹인다면 연상의 비약이라 할까? 또한 극히 일부 기독교의 조상의 우상화를 연상하면 안되는 것일까.

이같은 지역놀이의 관치화(官治化)는 전통 민속놀이의 적어도 부분적인 탄압 내지 말살정책과 짝짓게 되었다. 마을굿, 동네고사가 미신의 누명을 쓰고 허물어져 갔기 때문이다. 더러 당집이 헐리고 당나무가 잘려 나가기도 했다. 이런 동향속에서 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아니라 해도, 적어도 관은 뒤에서 암시하거나 중용하거나 한 것이다. 이른바 「가정의례준칙」의 이름으로 난데없이 정채 불명의 혼례와 장례가 나비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통과의례」가 한민족 문화의 최후의 보루임을 생각할 때, 진실로 허망한 민족적 자살행위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관과 체제측이 본의 아니게(정말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통민속의 억압자의 자리에 들어섰을 마침 그때 반체제 측에서는 학생과 근로자가 유대해서 「마당놀이」란 이름으로 전통민속을 중요한 전승무기로 삼는데 성공했다. 이리하여 부분적으로 체제측과 반체제측은 반전통 문화와 향(向)전통문화라는 경향까지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체제측이 스스로 사갈시한 별신굿 난장판을 「국풍」이란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치르고자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체제측이 반전통문화적인 움직임은 보인 것은 「새마을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마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 안길을 정리하는 등, 생활의 편의에 이바지한 보람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

령 농촌의 도시화 내지 유사 도시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도 확일적이고 독단적이었다. 만들어진 규격대로 변화하기를 강요했다. 마을이 길보기로도 병영처럼 규격화된 것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집의 모양새, 집의 방위 등이 그러했다. 심지어 「대문은 동, 집채는 남」이라는 전통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가옥의 방위가 무시되고 고속도로나 국로를 바라보는 「도로향」이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경우, 짚 지붕과 기와(양회) 지붕의 교체가 문화며 생활양식의 오래된 것과 새것 사이에 적용되었다. 새것 앞에서 옛것은 묵은 것이고 구닥다리였다. 이런 농촌의 획일화된 도시화는 바로 그 때문에 전통문화의 지역성을 강한 향수로 되돌아 보게 작용하였을 법도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새마을」, 「새나라」, 「새정신」 등 새것에 대한 편집광적 애착이 너무나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가정의례준칙」이 펼쳐낸 것도 같은 무렵의 같은 상황 속에서다. 전통혼례(결혼식이 아니고) 및 장례(장의식이 아니고)를 강압적인 행정명령으로 간소화하자고 든 명분을 두고 「식단」을 간소화하려고 든 경우나 마찬가지로 그 의도에 있어서 전적으로 오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럼 그 결과 「혼례」는 「결혼식」, 그나마 상업 예식장식의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결혼식이 판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우리들은 부모를 여의고도 우리식으로 울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곡(哭)은 우리식으로 양식화·문화된 울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과 의례가 전통문화 및 민족공동체에서 갖는 막중한 비중한 생각해야 했고, 전통문화의 기능가치와 정서가치를 제대로 고려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한복은 거의 정서가치로 치우쳐져 있다. 그렇다고 기능가치의 그늘에 묻히게 정서가치를 박해할 수 없다. 민족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는 「감정(정서) 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 문화의 정서가치는 또 다른 쪽의 기능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산업사회의 능률이나 효능을 전통문화의 정서가치로써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사회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각 지역문화제는 그 사이 줄곧 시행되어 왔다. 어른들은 학예회, 운동회가 보다더 큰 비중을 차

지하면서 이들 「제도민속」 내지 「관치민속」은 지역문화제란 이름으로 오히려 탈지역화한 개성 희박한 문화제를 지탱시켜 왔다.

이 점은 경상남도라고 아주 예외일 수는 없었다. 변한·가야·신라 등 적층된 문화사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문화제도 지역 개성이며 그 문화를 문화제를 통해 집약시키는 데에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힘이 부쳤다. 강릉 단오제, 남원 춘향제, 안동 민속축전, 경주의 신라제, 익산의 마한제, 고창의 모양성제 그리고 김해의 가락제 등을 “민중적인 정서와 민속, 역사적인 풍류가 인상적”이라고 선망하면서 “아랑제” 성격을 규정하려고 애쓴 밀양⁶⁾의 경우에도 이 힘부침에 대한 자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창립된 지 금년으로 사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를테면 현대 지방문화제의 효시격인 진주의 「개천예술제」마저 비슷한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역문화의 진흥, 수다한 문인 및 각 장르에 걸친 예술인을 줄줄이 배출한 그 공로이며 그 열정이 작게는 진주·진양문화 크게는 서부경남 문화의 지역성을 십분 포섭하지 못하였다는 자성을 발판으로 한, 더욱 새로운 거듭나기가 지금 당장 모색되고 있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임란때의 진주성의 항쟁, 진주민란과 형평사의 민권운동 등 특출한 소재 내지 주제가 그 사이 십분 살려지지 못했다. 그런 중에도 밀양 백중놀이와 영산 쇠머리대기를 일러서 좌밀양 우양산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축제 내지 지역 카니발의 면모를 살린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들은 지역성에 집약된 문화제만이 온전히 제 빛을 간직하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남은 민속놀이 가운데서도 편싸움으로 남다른 곳이다. 울산의 용마(龍馬)놀이, 김해의 석전, 밀양의 게줄당기기, 영산의 쇠머리대기를 드는 것만으로도 다른 도는 이 분야에서 압도 당한다. 같은 줄다리기라 해도 남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밀양의 경우는 아리랑의 영창이 딸린 「게줄」로 별나게 그 개성을 드러내 보인다.

경남의 편싸움은 이미 가야에서 비롯한다. 수로왕과 허비는 그들의 거대한 혼례절차의 일부로 바다의 배 달리기와 물의 말뛰기로 경합을 벌였

6) 밀양지 편찬위원회, 밀양지, 밀양문화원, 1987, p.238.

던 것이지만 이것을 정례화하여 금관가야의 놀이가 되었다고 「가락국기」는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마(船馬)놀이의 편싸움은 전국에서도 가장 긴편인 해안선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몇 개의 연안왕국을 역사상 간직하고 있는 경남다운 속성을 과시하고 있다. 바다와 물의 만남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육상 문화와 해양 문화가 맞닿음으로써 보다 더 복합적인 문화를 다른 도(道)와는 달리 역동적으로 향유해 온 경남의 진면목이 여기서 약여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가야의 선마놀이까지 합치면 도내에는 무려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편싸움이 존립하고 또 전해져 있었던 것이다.

편싸움은 「아곤」의 놀이다. 경남 해역의 「어방놀이」며 「홀치기」 혹은 「농침놀이」 같은 미미끄리 곧 「모병놀이」, 연극적 놀이 그리곤 춤놀이 등이 방자하게 흥을 돋구는 가운데서도 편싸움은 한국적인 축제, 한국적인 카니발의 정상에 자리잡을 수 있다. 그 신화적 배경, 개변론적인 주제가 노골적인 공격본능의 발산, 공개적인 농지꺼리를 더불어서 야성적으로 공동체의 쇄신을 촉구하기 때문이다. 계절적인 공동체 통과의례를 빅터·터너처럼 「리미노이드의 의례」라고 부를 때, 리미노이드의 성격을 가장 극단적으로 집단적인 대규모에 걸쳐 편싸움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 태종이 궁궐안에서까지 석전을 치르게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거나 살아남을 수 있는 전통문화의 화석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아파트 군락이 보여주듯 사회가 체제를 규격화하고 준생산 양식화하면 할수록 축전(祝典)이며 카니발에 대한 욕구는 커진다. 난장과 신바람을 향한 충동이 증폭되는 것이다. 반제도적인, 반사회적인 이른바 일탈(逸脫)이며 전복(顛覆)으로 치닫는 욕망이 꿈틀대는 것이다. 이것은 질서며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역의 몸부림」이다. 이 몸부림이 축전이며 문화제를 낳는다. 경남이 이미 주어진 이 천혜의 여건을 오늘에라도 지역 문화제에다 접맥하여야 한다. 경인지역에 버금할 산업화된 지대가 경남이다. 전국에서도 가장 크게 부각되는 울산·창원지역의 노조운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갈등이 계층간에서 직능간에서 남달리 두드러지게 경험될 현상이 곧 우리 경남이다.

울산에서는 신과 천년의 원시적 유적인 「처용암」이 빈사상태에 있다.

창원의 한 마을에서는 오백년 묵은 당산나무가 새로운 공장부지 안이라는 이유로 잘리게 되자 지역민과 기업이며 행정관청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내고향 남쪽 바다」인 가포는 썩은 거대한 웅덩이로 화(化)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적 수요(需要)를 포섭한 축전이 필요해진다. 축전도 축제도 필경 생존을 위한 치열한 문화·사회적 수요(需要)에 속한다. 공동체는 당연히 이 수요에 맞춘 공급을 기도해야 한다.

이같은 논지는 경남지역에서도 시행착오로서도 문화정책이 있어왔음을 이제는 반성할 때임을 다짐하기 위해서 전개된 것이다. 현대화와 전통 사이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시행착오도 전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요는 갈등과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를 현대화 및 전통 재창조의 동기가 되게 하여야 한다.

이웃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대화에 따른 전통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그것이 컸던 것조차 현대화의 촉매로 그리고 전통 재평가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남북의 패러다임을 위해

오늘날 한국의 학계에서 「레조널 스터디」나 「에어리어 스터디」 등 어느 쪽으로나 지역연구 내지 지역학의 역사는 길지 못하다. 거기 더해 사회의 양식, 바꾸어 말해서 정치·경제·예술·종교·군사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사회의 총괄적인 양식으로 정의될 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적 문화학(Study of Culture) 내지 문화 이론도 깊은 심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 생각한다 해도 이 작은 한편의 「경남문화연구」가 부실하지 않을까 두렵다. 자연사 및 자연의 변이 축을 따라 사회문화의 변동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구하는 서사체(narrative)를 기술하려고 든 의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자신이 없다.

이미 서술한 경남의 남북의 판이동이 시인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시사로 결론을 대신하고 싶다.

현재의 남북의 판이동의 현상을 그대로 지켜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부와 빈, 참여와 소외라는 대립으로 역내분열이 일어나 있는 것을 모른 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은 북을 향해 새로운 정신적 귀향, 전통에의 귀향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북이 유교와 기층문화 양쪽에 걸쳐 오늘의 문화며 사회의 뿌리로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가령, 경남 특유의 징사 내지 처사 정신만 해도 「보상을 묻지 않는 지역 봉사」의 귀감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불어서 서부경남의 유교가 오늘의 인문적 교양을 위한 고전으로 재활용될 길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약과 향계가 지녔던 제도적 장점, 그 정신적 지향이 지방자치 시대에 어울리는 「온고이지신」의 교훈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없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문제되고 있는 「뇌사」만 해도 전통적인 장례절차에 그 새로운 개념을 대입해볼 필요가 있다. 숨결죽음, 영혼사, 그리고 세포사에 이르도록 세검의 검사(檢死)과정을 신중히 거친 끝에 비로소 염습을 하던 사람들 관념 속의 죽음과 뇌사라는 새개념은 절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레와 품앗이가 자치시대의 사회봉사정신으로 재구현될 수 있을 것이고, 한 기업체나 제도 내부의 협동정신으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뿌리의 재검작업이 「과거·현재 연합(Past-Present alignment)」⁷⁾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붕을 개수하여 경남이란 건조물을 개축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지붕이 기울고 그리고 비가 새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경남의 태산교악 지대를 「환경산업」의 기지 또는 「녹색산업」의 대단지화하는 청색사진을 마련하면, 그것만으로도 경남 역내의 새로운 남북의 패러다임 변혁이 되리라 믿는다.

이제 다음 세기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서로 종류가 다른 부와 부, 참여와 참여로서 공존할 남북의 새로운 판이동이 비롯되면, 오늘 우리가 경남 백년의 역사를 기리는 기쁨이 보람을 거둘 것이다. 그 기대를 경남 백년의 축연의 자리에 바치고 싶다.

7) Graeme Turner (ed), Nation, Culture, Text, London and New York, 1993, p.78.

